

우 리 의 목 표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친미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 프랑스 대통령 사르코지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月刊

10

2007년 10월 1일

제 259호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발행인 諸宰馨 편집인 金玼熙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T. 02)732-4797, 2001-7621 F. 02)730-1270

www.kjclub.or.kr E메일 kjc1405@hanmail.net

• News Focus

‘褒說 언론상’ 제정

大韓言論人會

언론재단 · 기념사업회와 공동
3단체장 합의

· 기사 4면

· 선각 언론인 褒說선생

“나는 죽더라도 신문은...”

“나는 죽더라도 신문은 영생케 하여 한국민족을 구하라”
항일독립운동을 도운 영국인 베델. 한국이름은 배설(裴說).
그는 한국에서 6년을 살고 죽어서 영원히 한국 땅에 묻혔다.
자유언론에 몸 바친 그 숭고한 뜻을 기려 ‘배설언론상’을...

· 관련기사 4면

신정아와 투명사회론

신정아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할 즈음, 진짜 ‘예일대 박사’와 점심을 먹었다. 그는 신씨가 학력 위조의 대상으로 예일대를 찾아낸 것이 얼마나 ‘탁월한’ 선택이었나를 말하며, 첫째, 예일대가 있는 뉴헤이븐 근처에 대학이 별로 없어 한국학생들의 교류가 전혀 없는 점, 둘째, 특히 예일대 미술 사학과는 김홍남 국립박물관장(59)과 서울대 장진성 교수(41) 외에 한국인 졸업생이 한명도 없어 재학 여부를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사실 요즘 웬만한 미국 대학에는 한국학생 커뮤니티가 비교적 잘 발달되어, ‘가짜 유학생’들이 활개 칠 공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 신씨의 거짓말은 애초에 그렇게 음습하고 어두운 정보의 ‘구멍’에서 짖을 틈을 틔웠다.

지금은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변진 신정아 사건이 학력위조 사건 단계에 머물러 있을 무렵, 문화-연예인들의 (학력)고해성사가 줄을 이었다. 개중에는 언론사가 취재한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리를 감시한다. 신용 카드 정보는 내가 어떤 취향의 물건을 얼마나 사들였는지 철저히 기록하고, 인터넷 쇼핑물에서는 그 정보를 이용해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Web 2.0은 이런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화한 컴퓨팅 방식이다.

투명사회의 부조리를 경고하는 학자들은 공리학자 벤담이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고안했다는 원형감옥(panopticon)을 예로 들며, 미래사회엔 우리들이 죄수처럼 감시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동시에 투명사회는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왔고, 공적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감시당하는 대신, 감시하기도 쉬워졌다.

다시 신정아 사건으로 돌아가면, 신정아 사건이 사회적 의미를 달리하는 분기점이 바로 사적인 요소와 공적인 요소가 나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정아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적인 연애관계에 머물렀다면,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해

어두운 ‘구멍’에서 짖은 ‘게이트’ 공적 정보의 투명성 추구 언론의 필요성 일깨워줘

박 성 희

· 이화여대 교수
(언론홍보영상학부)

미리 반성의 글과 함께 고백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짓 정보가 불가항력으로 번져나갔다면 억울함을 토로한 사람도 있었다. 한 언론사는 개인정보를 퍼다 나르는 ‘포털 사이트’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한 번 어딘가에 잘못 기록된 개인 정보가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로 퍼져 나가는 바람에 거짓 정보가 증폭되었다고 지적했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포털이 아니었다면 위조된 학력은 지금까지 어느 연예 기획사 사무실 파일이나 언론사 인물 스크랩 귀퉁이에서 잠자고 있었을지 모른다. 동시 다발적으로 만민에게 공개되어 상호 체크되는 인터넷의 자동 검증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개인 정보와 함께 거짓 정보도 꼭꼭 숨어 있었을 것이다.

정보사회의 명암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개념이 ‘투명사회론’이다. 여기서 투명사회란 컴퓨터 망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회를 말한다. 아파트 경비실에도, 은행에도, 골목 어귀에도 CCTV가 설치되어 늘 우

당사자는 변양균 실장의 부인일 뿐, 그저 주변 사람들의 입담에 오르내리는 수준에서 그쳤을 것이다. 변 전실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적인 성격의 자금을 신정아에게 흘러들어가게 한 시점을 기해 신정아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로 변질한다. 또한 신정아가 사실 미술관 큐레이터에 머물렀다면, 그의 거짓 정보는 철저한 검증 대상이 아니었을지도, 따라서 추한 거짓말과 횡령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가 광주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이라는 공적 지위를 얻으면서, 사건은 미술계 추문에서 사회적 파장을 지닌 거대 비리사건으로 면모를 달리한다.

투명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정보이지, 공인의 공적 정보가 아니다.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자신의 세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며, 누구에 의해 집행되는지 모두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공적 정보들의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언론이다.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언론이 절실히 필요한가를 신정아 사건은 새삼 일깨워주고 있다. [칼럼]

KPF지원도 ‘코드’ 인가?

올해 ‘본회 대토론회’ 제외

한국언론재단의 ‘2007년도 KPF지원사업 선정’이 ‘코드’에 맞춰 불공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발표한 올 하반기 세미나지원 단체명단에 과거 여러 해 동안 선정된 대한언론인회(대토론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탈락된 것이다.

대한언론인회는 “우리 회가 현 정부의 언론정책 등에 비판적인데다가 세미나 주제 발표자의 성향에 불만이 있어 배제한 것 같다”고 판단, 언론재단 측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이에 언론재단 측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정된 지원단체의 성격이나 세미나 주제를 보면 선정기준에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 4면에 계속 →

알림

가을 문화유적탐방

· 10월 11일(목)

오전 8시 30분 프레스센터 출발

※주민등록증 꼭 지참

CONTENTS

· 이달의 大韓言論

Ombudsman ⑥

· ‘신정아 쓰나미’ 뉴스들이 묻혀
· KBS, MBC 뉴스 포기하던 날

Cinema ⑧

· 영화탐험 ‘카사블랑카’

· 단풍의 계절 가을의 대둔산

대둔산 초대합니다

알림 4면

History & He-story ⑪

· 그 ‘남산’의 回憶

Member's Corner ⑬

· ‘인촌상 수상’ 남시욱 회우

대선과 언론공작

대토론회

<발제요지 7면>

저작권의식제고 캠페인 첫번째 이야기

‘무인 가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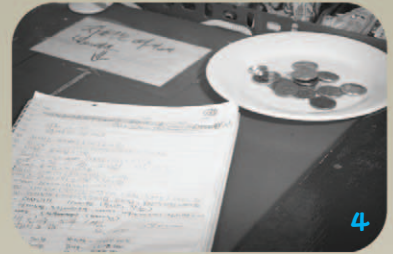
전남 장성 신촌마을
꼬마 삼총사에게 오늘은 신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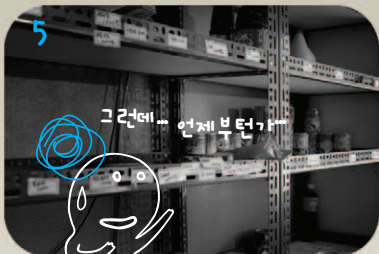
마을에 새로운 가게가 생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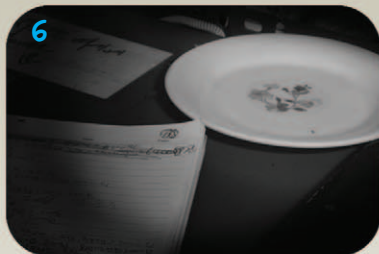
이곳은 주인없는 ‘무인 가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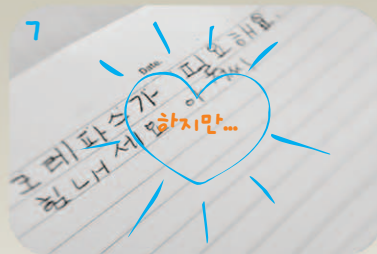
주인은 없지만 모두가 지킨 작은 약속



그런데... 언제 부턴가...



마을사람들은 ‘공짜 가게’라 불렀습니다



다시 지켜지기 시작한 ‘약속’



마을 사람들의 무인가게도
다시 작은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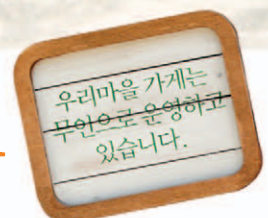
인터넷은 우리 모두의 양심가게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화산업 피해규모 연간 1조원 이상!!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사회, 생활 속 작은 약속과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

그 중심에 저작권위원회가 있습니다.



溫故知新

‘天津 TV제작자 포럼’ 見聞錄

지난 9월 12일부터 나흘동안 중국 천진에서 열린 제7회 ‘한·중·일 텔레비전 제작자 포럼’에 다녀왔다. 이 방송 포럼은 매년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며 주최하게 되어 있다. 이번에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보통사람의 삶. 환경, 그리고 올림픽 정신과 프러듀서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천진 천보(天保) 국제호텔에서 중국 주최로 개최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 각 35명, 중국에서 130명, 모두 200명의 프러듀서와 디렉터 등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함께 모여, 각국이 출품한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오락프로그램 등을 분과별로 같이 감상하고 평가하는 한편 해당 제작자의 기획·제작과정 설명을 듣고 서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출품 작품은 드라마 부문으로 한국의 「쩐의 전쟁」(SBS) 등 여섯 작품, 다큐멘터리 부문으로 중국의 「장강을 다시 말한다」(CCTV) 등 여섯 작품, 오락 부문으로 일본의 「일본어로 즐겁시다」(NHK) 등 여섯편 함께 18편이 소개됐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들을 보고 나서, 특히 일본 참



崔彰鳳

- 본회 명예회원
- 방송인회 이사장
-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가자들이 한국과 중국의 제작기술 수준이 이미 일본과 같아졌다고 감탄하는 한편, 세 나라 제작자들은 앞으로 배우, 연출, 각본, 자본 등 모든 부문의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해서 한·중·일 3국이 국적을 넘는 상호협력으로 세 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을 공동의 동아시아 브랜드로 세계에 발신해 나가자는 어필이 뜨겁게 오갔다. 공동 프로그램의 제작에서는 언어의 벽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역사인식의 차이 등 난문제들이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3국 제작자들은 ‘가족’과 같은 공감을 얻기 쉬운 주제들로부터 실행해 나가자는 인식에 모두들 동의하였다.

123년 전인 1884년 일본과 청국이 조선반도를 에워싸고 맺은 천진조약(天津條約)의 무대였던 천진에서 프로그램 공동제작을 위해 열띤 논의를 하는 젊은 세 나라 프러듀서들에게서는 어떤 정치적 간극도 보이지 않았다.

포럼 마지막 날에는 천진 탕구 대극장에서 세 나라 연예인들의 공연을 결집한 시상식이 베풀어졌다. 오래전, 중국 대륙을 울렸던 일본 NHK 드라마 ‘오싱’에서 당시 열살의 어린 오싱으로 나왔던 ‘고바야시 아야코(小林綾子)’씨가 출연해 관중들을 열광 시키기도 했다.

행사가 끝나고 주최측의 안내로 돌아본 천진박물관 안에는 천진이 1860년 개항 이래 일본을 위시한 구미 8개국 조계(租界)가 설치되면서 열강의 중국인민 수탈의 기지로서 차츰 대도시로 커 나가는 과정과 이에 저항하는 중국 혁명사상 여러 사건의 기록들이 전시돼 있었고 천진조약을 조인하는 이홍장(李鴻章)과 이등박문(伊藤博文)의 사진도 끼어있었다.

이어서 둘러본 서울의 인사동과 같은 고문화가(古文化街)에서는 큰 스피커에서 우리 연속극 ‘대장금(大長今)’의 주제가(主題歌) 멜러디가 크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구도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

윤이상 친북활동

예술과 별개의 국가 영역

청와대를 방문한 고 윤이상씨의 부인 이수자 여사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큰 절을 올렸다. 80 노인인데 갑자기 큰 절을 하는 바람에 대통령도 매우 당황했다고 한다. 이 여사는 큰 절의 이유를 노 대통령이 윤이상씨의 명예회복을 시켜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했다...

“현 정부에서 초청해 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이씨의 말대로 남쪽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렇다면 윤이상씨 부부는 한국 정부나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는 걸까? 나는 지난 일을 잊고 품어 주지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그는 음악으로 나라를 빛낸 사람이다. 그만큼 소중한 인물이다. 그렇다고 성공한 예술가는 무엇이든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치나 권력이 예술을 간섭하거나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예술의 영역은 자유다. 그러나 예술의 이름으로 한 체제를 찬양한다면, 특히 그 체제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체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개인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그의 예술은 포용하되 그의 정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말을 해야 했다. 그의 귀국이 지금까지 어려웠던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기자회견에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끄집어 내지 않았다. 예술가의 명성에 눌러서인가 아니면 의식의 미비인가. 이씨는 출국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상처는 드러내야 빨리 아문다.

문창극 (주필)

· 중앙일보 9월 18일 '문창극 칼럼'에서

고독이 질병을 부른다

잊혀짐은 슬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잊혀지지 않으려 몸부림을 친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잊혀져 간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음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소름끼치는 일은 누군가에게 잊혀짐이다...

외로움이 질병을 부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의 스티븐 콜 박사는 외로운 사람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는 백혈구가 덜 생산된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외로운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다. 내가 누군가를 잊게 되듯이 누군가도 나를 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독은 늘 곁에 있는 것이다. 현대인은 유독 고독에 약하다. 예전에는 없던 ‘광장의 고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가을이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내가 그를 기억하듯, 그가 나를 잊지 않도록. 찬 바람이 불면 감기보다 고독을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김택근 (논설위원)

· 경향신문 9월 17일 '여적'에서

드골을 본 받아라

“내가 죽으면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르기 바란다. 국장은 원하지 않는다.

각료들은 나의 장례식에 올 필요가 없다.

나의 묘지는 딸 안느가 잠들어 있는 콜롱베의 마을 공동묘지로 해 달라.

그리고 묘비에는 샤를 드골, 1890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적어서는 안된다”

유명한 드골의 유서 내용이다.

기자는 평소 드골의 묘지를 꼭 한번 보고 싶었다. 그의 묘지는 정말 마을 공동묘지 안에 있었다...

드골의 은퇴는 드골이 어떤 정치인인가를 보여주었다.

대통령 연금도 거부하고 대령 연금만을 받았다고 고집했으며 자신이 속해 있던 당 간부들과도 접촉을 끊었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난 후 일체의 표창장이나 훈장도 거절했다.

오늘날 파리의 국제공항이 ‘샤를 드골 공항’으로 이름 지어지고 개선문 에투알 광장이 ‘드골 광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드골이라는 이름이 역사에서 얼마나 권위 있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드골은 권력을 쌓지 않고 권위를 쌓은 정치인이다.

그는 은퇴를 통해 다시 탄생했다. 마을 공동묘지에 묻히고 집 한 채만 달랑 남긴 정치인이지만 ‘굴리즘’의 불은 프랑스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에서 평가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드골의 은퇴를 좀 연구해야 된다.

이철 (미주 한국일보 고문)

‘褒說 언론상’ 내년 5월 施賞

베델서거 100년 맞아 3단체 시행방안 곧 마련

대한언론인회(회장 제재형)는 한국언론재단(이사장 정남기), 배설(褒說・Bethell) 선생 기념사업회(회장 진채호)와 공동 주관으로 ‘배설 언론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합의문 별항

세 단체 대표는 지난달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모임을 갖고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창간 사장 배설(1872~1909) 선생의 자유언론

사상과 항일투쟁을 기리는 ‘배설 언론상’을 제정, 선생의 서거 100년이 되는 내년 기일(5월8일)부터 해마다 시상할 것에 합의했다.

이들 공익법인의 세 대표는 이날 오찬회동에서 ‘배설 언론상’ 제정원칙에 합의, 서명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세 단체의 사무총장(김건이, 최홍운, 정정수)이 따로 마련토록 위임했다.

배설(褒說) 언론상 제정·시행에 관한 합의문.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언론 문화 창달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익법인의 대표자로서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2. 대한매일신보 초대 사장인 배설(褒說・Earnest T. Bethell) 선생의 자유언론사상을 기리기 위하여 ‘배설 언론상’을 제정, 서거 100년이 되는 2008년도부터 시상기로 한다.
3. 위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각기 1명씩 지명하는 실무자 회의를 구성한다.

2007. 9. 13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정남기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
회장 제재형
사단법인 배설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진채호

・大韓每日申報 창간사장 베델(褒說)

베델(Earnest Thomas Bethell・褒說)은 한말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현 서울신문)를 창간, 사장으로 취임하여 항일투쟁을 벌였던 우리민족의 벗이며 은인이다. 그는 영국의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The Daily Chronicle)지 특파원으로 러・일전쟁 취재차 내한했다가 양기탁, 신채호 선생 등과 함께 대한매일 한글판과 영자지를 발간했다. 이 신문은 항일투쟁의 대변지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일제의 언론탄압과 영국 정부의 압력, 신문사 간부들의 구속, 경영난 등으로 신문사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심장병)되어 3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민족을 구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묘소가 있으며 프레스센터 1층에는 흉상이 있다. 정부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산악회 소식

대둔산으로 초대합니다



단풍의 계절 10월이 왔습니다.

가을산행은 기암괴석과 협곡으로 이루어진 충남과 전북 경계에 있는 대둔산(높이 878m) 구름다리와 케이블카 등의 비교적 순탄한 산 관광지로 초대합니다.

- ・일시 - 10월 26일(금) 오전 7시 30분
- ・신청마감 - 10월 22일까지 (선착순 35명)
- ・집합장소 - 프레스센터 앞 관광버스 대기, 오전 7시 20분까지 탑승(시간엄수)
- ・산행코스 - ①등산코스 = 무추지-화랑폭포-석천암-낙조대고개-정상합류(약 2시간 소요) ②관광코스 = 주차장-케이블카-금강구름다리-삼선구름다리-정상합류(약 1시간 소요)
- ・준비물 - 중식・간식・음료수 각자 준비
- ・회비 - 2만원(가족은 1만원・동반환영)

※기념품 증정

- ・연락처 - 본회 사무국 02-732-4797(주소영) 산악회 총무 011-443-0063
- ※산행뒤 뒷풀이 만찬

대한언론인회 산악회 회장 조창화



“박는다” “뿔꺾는다”... 언론 대못질 수난

太平路만평

沈載福 漫 회 화 우

♣ 바로잡습니다

올해 대토론회 순차는 18회가 아니고 19회 입니다. 계산착오로 한 회가 빠졌습니다. 회우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 부음



・안표순(安豹淳) 회우가 9월 14일 오전 8시 강남 삼성서울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76세. 안 회우는 KBS광주방송 총국장・방송심의위원・KBS아트비전 감사를 역임했다. 부인 최광순 여사와의 사이에 동진(부산MBC 아나운서 차장) 동성(음악프러듀서) 영지(방송작가)씨 등 2남 1녀를 뒀으며 자부 류영혜 씨도 방송작가로 방송가족이다.

♣ 본 회 日誌 (9월)

- ・4일= 후생복지위원회
- ・5일= 제113차 이사회 (신입회우 7명 가입승인)
- ・6일= 30년사 편찬위원회
- ・12일= 회보 편집회의
- ・19일= 제16회 언론상 심사위
- ・23일= 새문안교회 창립 120돌 축하
- ・25일= 추석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 순



호, ☎ : 011-898-0025



011-750-8877



아파트 2동 302호, ☎ : 017-223-8903



☎ : 011-9101-1234



・김창대(琴昌泰) 회우
38년생. 중앙일보 논설위원-편집국장대리-사장-부회장, 서울미디어그룹 부회장(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95-62 삼성보라매 오피스타워 1403호, ☎ : 011-898-0025

・김용발(金容發) 회우
46년생. 조선일보 기자, 헤럴드경제 차장, 보건의문 사장, 여약사신문 부사장(현)
・서울 송파구 송파동 132-15, ☎ : 011-712-5024

・박진열(朴珍列) 회우
53년생. 한국일보 논설위원-편집국장-상무, 스포츠한국 사장(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6동 1206호, ☎ : 011-750-8877

・성백진(成百璣) 회우
39년생. 서울신문 편집부장, 세계일보 편집국장, 대구일보 사장, 아시아투데이 전무이사(현)
・서울 은평구 신사2동 신성아파트 2동 302호, ☎ : 017-223-8903

・유용현(柳龍鉉) 회우
44년생. 경향신문 기자, 국민일보 교열부장 겸 부국장.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경남아파트 103동 1005호 ☎ : 019-658-0359

・정용석(鄭龍錫) 회우
43년생. KBS 뉴스파노라마 부장-도쿄지국장-앵커, 분당 FM 대표(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8-1 로얄팰리스 A동 303호 ☎ : 011-9101-1234

・한광희(韓光熙) 회우
41년생. 한국일보 사진부 기자, 서울경제 사진부장, 덕적도 연수원 원장(현)
・인천 옹진군 덕적면 서포리 383 ☎ : 016-586-9953

■ 회비 내신 회우

・2007년분

김영대 김용발 김호기 박종서 송형묵 오동환
유용현 임병학 임상학 장석훈 정병수

・2005년분

임상학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 주소・전화 바뀌었습니다

・김종열(金宗烈)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경남 아너스빌 106동 401호 ☎: 070-7567-0770

♣ 본회 내방 (9월 1~30일)

・손님 김명하(고려대 경제인회 회장)
・회우 최창봉 구종서 권혁만 김명구 김성수 김의수 김운덕 김재영 김종현 김 호 김호기 김후관 김 현 남재희 동홍석 문제안 박기병 박용운 송두빈 송희빈 송형묵 신동식 심재복 안종화 안홍열 오동환 유선우 유용현 이상우 이상호 이억순 이용호 이정석 이종운 이형균 이혜복 장석훈 정기정 정문식 정재필 조천용 지연홍 지용우 최서영 최귀조 한상규 한영탁 현영건 현준건 홍원기 황대연

← 1면에서 계속

KPF지원도 ‘코드’ 인가?

우선 채택된 주제들은 본회처럼 대개 12월 대선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 주제(대선과 언론보도 자세)가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 단체의 성격을 보더라도 대한언론인회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까닭이 없다.

그러면 왜 탈락시켰을까? 지원 단체들의 성향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대선미디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방송기자클럽’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 11개 단체가 선정됐다. 대선미디어연대의 경우는 3회 연속 지원된다.



· 장엄하고 웅장한 아마다 블랍.

로 들어가는데 몹시 추위도 달 구경을 하고 히말라야의 밤을 행복하게 보냈다.

히말라야의 아침은 상쾌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웅장한 아마다블랍이 아침 인사를 한다. 별들이 반짝이고 달은 히말라야의 설산을 환하게 밝히니 너무 기분이 좋다

오늘 계획은 오전에 두클라(4,593m)까지 3시간, 오후에는 로브제(4,930m)까지 3시간을 올라가야 한다. 5,000m고지를 올라가야 하므로 고소 적응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가능한 천천히 후미에서 따라 올라갔다.

등반하다 숨진 산악인들 묘석들

히말라야를 오르면서 수많은 초르텐과 툽다를 만나게 된다. 언덕을 30여분 올라가니 탁 트인 시야의 능선 아래 넓은 초원이 펼쳐진다. 왼쪽 아래에는 페리체 마을이 평화롭게 보이고 콜라가 굽이굽이 흐르고 있다. 쿼부 히말라야의 장엄하고 웅장한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좋다. 출라체를 바라보며 오르는데 양지바른 능선에는 낮은 누피 나무만 자라고 있다. 산행 길 옆에는 돌담으로 울타리를 쌓은 야크 하우스와 목동의 집이 6~8개는 있어 보인다. 야크 방목지대에는 뭉게구름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푸른 초원의 길로 야크

탁트인 視野에 저 웅장한 모습이 성큼!



神들의 땅 에베레스트 '칼라 파타르' (5,548m)

(中)

밤하늘 별이 눈 앞에서 반짝

풍기텅가로 가는 길은 높은 만큼 깊은 산 히말라야의 높고 낮은 봉우리를 수 없이 오르내림을 반복하여 깊은 골짜기와 다리를 수없이 건넜다. 풍기텅가에서 탕보체까지는 약 600m 고도를 높여야 하고 3~4시간 올라가야 하는 힘든 오르막길이다. 한 무리의 야크가 짐을 잔뜩 싣고 방울 소리를 울리며 지나가면 길 옆에 비켜서서 보내고 다시 올라간다. 아열대 수목이 가득 찬 숲길을 따라 내려가니 계곡 위에 몇 채의 농가가 있다. 여기서부터 완만한 길로 걷기 좋은 길이 나왔다. 걸어가는 길은 낙원이다. 이곳 사람들은 다리를 신성시하여 형형색색의 툽다(기도 깃발)를 걸어놓는 것은 다리를 지날 때마다 “부디 하는 일이 잘되고 가족 모두 아무 탈 없게 해 달라”는 기도문의 일종이다.

오색 깃발은 바람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 완경사가 서서히 가파라진다. 캉데카를 바라보며 걸었다. 초르텐(불탑)이 세워져 있는 언덕 모퉁이를 오르니 광보체다.

광보체에서 덩보체까지는 3시간 정도 걸린다. 광보체를 빠져나가면 멀리 소마레까지 고산평원이 펼쳐진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경사도 그렇게 급하지 않은 전통적인 산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가니 오래된 세르파들의 마을 소마레에 당도했다.

소마레에서 언덕위로 올라선 다음 오소를 지나가면 페리체(4,240m)와 덩보체(4,410m) 갈림길이 나오는데 우리는 오른쪽 덩보체로 올라갔다.



· 칼라 파타르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다.



· 짐을 운반하는 포터.

히말라야의 밤 하늘은 낭만적이다. 하늘을 쳐다보니 쏟아질 정도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반짝이는 것이 장관이다. 잠시 달빛에 비치는 로체를 바라보고 침낭으

무리가 신나게 방울 소리를 울리며 간다. 왼편에는 짐을 잔뜩 싣은 3~4마리를 주인이 몰고 올라간다. 히말라야의 귀중한 재산은 고산에서 물건을 운반할 때 쓰는 야크이다.

다우로부제 피크를 바라보니 경사가 완만한 걸기 좋은 길이 나왔다. 고소를 무척 걱정하고 출발했는데 모든 대원이 잘 걸어 3시간여 만에 투클라에 힘들지 않게 도착했다. 다소 시간은 이르나 투클라 뚝지 밖 양지바른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고 로브제로 향했다. 너털 길과 같은 긴 오르막길 언덕으로 올라갔다.

야크 방목지를 조금 지나니 로브제로 올라가기 전 초르텐과 작은 돌담이 줄지어 쌓여 있다. 쿼부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숨진 산악인과 세르파, 포터 등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묘석들이다. 바람과 구름을 벗 삼아 못다 이룬 꿈을 간직한 채 이 언덕에 잠들어 있다. 히말라야의 웅장함과 장쾌한 빙하가 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고 고인이 된 세르파와 포터를 위로하고자 자그마한 돌덩이를 쌓은 것일망정 인상적이다. 잠시나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우리 팀은 우람하게 솟아오른 푸모리봉 늑체 등 설봉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간식과 음료수를 마시며 쉬었다. 투클라에서 2시간 30분만에 로브제에 도착했다.

신문시평

‘신정아 쓰나미’에 뉴스들이 묻혀

신정아 변양균 사태로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있다. 폭풍과 해일이 덮친 꼴이다. 정운재 사태 역시 위력이 만만찮은 태풍이다. 국민과 언론이 이 엄청난 재앙 앞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다. 그러나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들이므로 신문 1면에서부터 마지막 면까지 이를 다루고 온 종일 왁자지껄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하지만 화재를 당하거나 수재를 입어도 먹고 마시거나 입는 일을 빼먹을 수 없듯 난국에도 챙기지 않으면 안될 일들이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선 주자들의 검증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국민의 의사가 꼭 반영되어야 할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들인데 이 파도에 휩쓸리고 있다. 또 재난으로 경황없을 때를 노려 못된 일을 하는 인간들처럼 판 짓 하려는 패들이 있게 마련인데 이에 대한 주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은 차리라고 사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에 대한 감시 시선을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대못질’ 등

남북정상회담 의제 등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

언론에 계속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정부의 무지한 각오가 걸립돌이 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런 틈을 타 못된 짓을 하거나, 이미 저지른 잘못을 얼버무리며 슬쩍 지나가려는 측이 있을 수 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잘 잊어버리는 국민성을 악용하려고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느긋이 기다리는 이들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 정치인들이 특히 그렇다.

신문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지난 일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그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은 더욱 그래야 할 때이다.

노 대통령 임기만료를 코앞에 두고 기어이 하겠다는 남북정상회담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북한 인권이나 핵문제는 다룰 생각이 없고, 북한이 원하는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논의하겠다는 등 의제에 대해서 속상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 신정아 물살에 이런 것들이 겹가지가 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 맡길 사

람을 찾는 대선정국도 이른바 범여권의 신용미달, 경선흥행 부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칫 본선마저 부실해질 가능성이 많다. 신문은 국민과 독자를 위해서 이런 점들을 검증하고 기억하는 일을 충실하게 대행해주길 바란다.

예전에는 어떤 사안의 후속이나 속보가 지면 및 인력 부족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각 신문사의 인터넷 판이 있어 이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즉 그에 해당하는 인물들의 데이터뱅크를 상시 운영하고 새로운 사실을 업데이트 해 놓으면 굳이 조사부를 찾아가지 않아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모든 것이 온라인 상에서 거의 모두 공개되고 있지

◆ 요즘 신문엔...

누드사진! 이건 좀 심했지요?

상업적 가치와 흥미요소를 두루 갖춘 ‘신정아 게이트’ 그 ‘핑크빛’의 유혹을 떨치지 못했던 신문들.

끝내 ‘선정주의의 결정판’을 보여줬다.

신정아 누드사진...??

특종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실었을 텐데

그래도 좀 심했지 않나 싶다.

알 권리도 품위를 유지할 때 지킬



수 있는 것.

‘언격(言格)’ 곧 언론의 품격이 정말 아쉽다.

(M)

만 그건 단순 정보의 유통일 뿐이다.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신문 기능과 조직의 가동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 건망증을 악용, 과거 비리를 슬그머니 덮고 나서는 이들을 막아야 한다. 즉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익을 해치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들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뻔뻔하게 다시 설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을 대신한 검증과 기억을 신문이 강화해야 한다. [M]



朴 連 浩

· 본회 회우
· 전 국민일보
· 본설위원

방송시평

KBS, MBC가 뉴스 포기하던 날

지난 9월 16일 저녁 6시 태풍 11호가 한반도 남부를 휩쓸고 있을 무렵 지상파 3사를 본 사람이라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하고 자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SBS는 제주도와 한반도 남부를 휩쓸고 있는 태풍11호에 관한 뉴스 특보, KBS1은 열린 음악회, KBS2는 제주도 해녀 이야기, MBC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오락프로를 내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리가 없다 싶어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보았으나 단국대 교정에서 벌이는 KBS1의 열린음악회는 열을 더해가고 있고 KBS2의 해녀 이야기는 물폭탄을 맞아 처참하게 부서지고 있는 제주의 모습을 잊은듯 한가한 제주 해녀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고 MBC는 전남 선녀들의 기량 시합을

본격화한 후 오후 6시 태풍특보에서 태풍11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6시 15분 고흥반도로 상륙하는 태풍11호의 위력을 실황중계하는 민첩성을 보였다. 특히 강처럼 탁류에 휩쓸리고 있는 제주 시내의 도로에 뛰어들어 촬영한 생생한 화면 등은 SBS의 뉴스를 업그레이드시킨 쾌거였다.

이번 사건은 SBS가 KBS, MBC보다 태풍11호 보도에서 앞섰다는 단순한 문제로 결착지를 성찰의 것이 아니다. 왜 공영방송들이 재해 방송에 둔감했느냐 하는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아다시피 KBS는 재해방송의 주관 방송이다. 태풍이나 지진, 홍수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을 계도하고 피난을 안내하며 재해의 정보를 끊임없이 전달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인력도 준비되어 있다. 상상하기는 싫지만 적의 공격으로 기간통신망이 붕괴되었을 때 의존할 수 있는 통신망은 KBS의 FM망이다.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방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도 바로 여기다.

그런데 제주도가 기상관측 이래

‘재해’ 둔감한 공영방송 SBS 민첩성 돋보여

최대의 500mm 물폭탄을 맞고, 17명이 사망·실종되고, 1000여대의 차량이 침수되고, 100여척의 어선이 피해를 입는 사태를 당했는데 왜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재해방송으로 들어가지 못했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KBS와 MBC가 제주도와 남해 일대의 피해를 보도한 것은 이날 밤 9시 정시뉴스에서다. 사태가 벌어지고 3시간이 지나서다. 담당자들이 임시뉴스감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

평생을 뉴스의 길을 걸어 온 담당자들이 그렇게 무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문제는 정규 방송을 끊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모니터를 열심히 하는 사장이라면 당장에 전화를 걸어 뉴스특보를 명했어야 마땅하다. [M]



趙 昌 化

· 본회 회우
· 전 KBS 기초실장

벌이는 “불가능은 없다”를 고수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명색이 공영방송이란 채널들이 제주도가 저토록 속대밭이 되고 있는데도 한가한 오락물을 내 보낼 수 있는가.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행사는 약속이나 한듯 3사가 같이 중계를 하면서 1923년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물폭탄을 맞고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의 상황을 KBS와 MBC는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폭탄에 대해선 둔감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전 국민을 허우적 거리게 하고있는 세급폭탄도 외면하고 500mm가 넘는 물폭탄도 외면하기로 한 것인가. 17명의 생명이 사망·실종된 물폭탄 속의 제주도민이 한가한 제주도 해녀 이야기를 보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상상을 해 보라.

한편 SBS의 순발력과 결단은 높이 평가할 만했다. 더우기 KBS, MBC가 뉴스를 포기한 상황에서 SBS의 발빠른 편성은 돋보였다. SBS는 이날 오후 4시 뉴스특보를 통해 태풍방송을



1. 정치와 언론

역사상 어떤 정권이나 정치집단도 언론을 조종·통제하려는 욕망을 단념한 적이 없다. 전제주의국가이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이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정치 권력자들에게 언론은 정치공작의 대상이며 도구다. 정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 국민을 회유하거나 기만하기 위해 언론을 최대한 활용한다.

2. 언론공작이란

언론공작은 어떤 개인과 집단, 특히 충분한 정치적 자원과 돈을 가진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홍보를 위장해 언론에 역정보를 흘리거나 각종 비정상적, 비이성적 기법으로 유리한 언론보도를 이끌어내려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언론전략'으로 포장되는 언론공작은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즉, 언론공작은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정치적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광고나 홍보와 같은 정상적 수단을 동원하는 언론 전략과는 구별된다.

3. 언론공작과 선거

언론공작은 특히 선거 때 기승을 부린다. 정치는 정치적 편견을 동원한 정치세력들의 권력 투쟁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도 결국 세력 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정치 투쟁의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는다. 언론은 이러한 정치 투쟁의 한 가운데 있다. 후보자들의 말과 행위는 언론을 통해 대중이 그것을 알아 줄 때만 표로 연결된다. 어떤 정치적 이슈도 언론이 그것의 중요성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국민들은 최종 선택을 위해 후보자들에 대한 수많은 선거 정보와 지식 가운데서 핵심을 선별해야 한다. 후보자들이 국가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 있으며, 특정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인간성과 성실성, 경쟁력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언론은 국민의 선거 가이드이다. 언론은 선거의 이슈를 정의하며, 그것을 뜨거운 논쟁으로 점화시킨다. 언론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들 통해 유권자들에게 결정의 동기와 배경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언론은 정치인들의 교묘한 언론공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후보자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유권자들과 소통하며 접촉한다. 하나는 전혀 돈을 지불하지 않는 언론의 뉴스 보도이며 다른 하나는 돈을 들여야 하는 광고나 우편물, 전화 등이다. 돈이 들지 않는 언론 보도는 기자들의 권위가 무엇을 보도할 것이며, 무엇을 무시할 것인가를 전적으로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후보자들의 영향력 밖에 있다. 뉴스와는 달리 정치광고는 후보자들의 직접 통제 아래 있다. 후보자들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내용으로 자신들의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광고에 크게 의존한다. 후보자들

· 대한언론인회 제19회 대토론회

발 제 요 지



손 태 규 교수
(단국대 언론영상학부)

- 때 : 10월 4일(목) 오후 2~5시
- 곳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대한언론인회 주최 제19회 대토론회 참석 회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 발표할 손태규(孫太圭) 교수의 발제 '대통령 선거와 언론의 보도자세-대선과 언론공작' 내용을 미리 요약하여 실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편집자)

언론은 국민의 선거가이드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보도에 구조적 한계 갖고있는 한국언론 또 '언론공작'에 놀아날 것인가?

은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전달하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광고를 활용한다. 특히 감성적이고 감성적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광고에 큰 돈을 들인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정치광고가 정치뉴스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을 잘 안다. 국민들은 정치광고가 교묘한 술수에 의해 만들어진 부정직한 메시지를 파악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광고처럼 뉴스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에 봉사하도록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조종과 통제를 계획한다. 그들은 자신에 대한 정보와 이벤트로 정치뉴스를 독점하기를 원한다. 그 욕심이 지나치면 그 정보와 이벤트를 가공·조작하는 정치공작을 감행한다.

언론은 정치권의 공작에 쉽게 말려든다. 뉴스의 내용을, 탐사보도 등 자체 취재보다는 정치권이 생산한 내용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취재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취재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고 있으며 기자들의 취재 열의도 떨어지고 있다. 기자와 언론사의 수동적 자세는 언론공작이 성공할 수 있는 본질적 토양이다. 대선 등 중요 이벤트가 벌어질 때마다 언론들은 정치권이 제공하는 정보를 중계하기에만 바쁘다. 또 객관보도,

사실보도에 대한 지나친 믿음은 정치권이 생산하는 내용에 대한 검증보다는 그 자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보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4. 언론공작의 방법

언론공작의 종류는 다양하다.

- 1) 민족감정이나 정서에 호소한다.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에 대한 증오심,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
- 2) 국민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호도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 이벤트를 벌인다.
- 3) 희생양을 설정한다.
- 4) 위증자를 동원한다.
- 5) 악마화 대상을 설정한다.

지난 대선은 이러한 형태의 언론공작이 크게 성공한 예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언론공작은 올 대선에서도 정치권에 의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만약 정치권이 올 대선에서 똑같은 언론공작을 실행하더라도 지난 대선의 학습효과 때문에 국민들을 회유,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과거의 정치 역사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5. 한국언론과 언론공작

한국 언론은 그동안 정치권의 언론공작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다. 선거 때는 더욱 그러했다.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에게 언론은 오로지 정치공작의 도구일 뿐이었다. 이런 상황은 이른바 민주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한국의 언론 상황은 언론공작을 매우 용이하게 만든다. 한국 언론은 끈질기게 정치권의 부정과 부패를 파헤치고, 정치권의 폭로나 주장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노력이 부족해 보이며 그것을 위한 환경도 여의치 않다. 한국의 기자들은 정치권이 던져주는 정보를 둘러싸고 지나친 특종 욕심, 언론사 사이의 지나친 경쟁 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치권의 역정보 흘리기 등 언론공작이 성행하고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한국 언론은 정부나 여당의 조종과 통제가 심각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상당수 방송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밖의 여러 매체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어 친정부 또는 친여 성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언론과 언론사가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정치적 이해나 목적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당파적 언론의 전형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한국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특정 정파가 특정 언론매체와 연계해 언론 공작을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특정 정파의 언론공작을 충분히 간파하고서도 의도적으로 적극적인 보도 지원에 나서는 언론이 또 다시 나타날 것이다.



해외紀行

여기는 알프스! 눈(雪)이 숨신다

金鍾憲 · 본회 논설위원

나와 집사람은 윗동서인 임현태회우 부부와 함께 제네바 유엔 대표부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임 회우의 아들 훈민군의 초청으로 지난 7월 19일 서울을 떠나 8월 18일 귀국까지 꼭 한달동안 유럽 5개국을 순방했다. 이 글은 '길고도 짧은' 유럽 여행중 해발 4,158m 융프라우요흐 알프스 정상에서 메모한 느낌을 옮긴 것이다.

뱃사공은 배를 저으면 저을수록 뱃길이 익숙해진다는데 인간의 세상살이는 살아가면 살아갈 수록 어려워지는건 어쩔일일까.

세상이 바쁘다 바쁘다 하는 것은 하늘에서 바쁜 일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쁜 일을 만들어서 바쁘게 살기때문이 아니겠는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세상 만물이 잠을 자도록 천지가 조화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명인(?)들은 밤낮으로 바쁘게 살아야 하니 세상의 조화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빨리빨리 사는 것만이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생사(生事)는 사생(事生)이요, 성사(省事)는 사성(事省)이라 했으니 일을 만들

때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알프스 관광객들로 가득하다. 더운 여름철인데도 긴소매 옷과 두툼한 바지, 가벼운 등산화를 준비해야 한다. 말 그대로 눈의 알프스였다.

우리가 오른 융프라우요흐는 알프스 봉우리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곳이다. 알프스 열차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융프라우요흐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뽀와와 아이거를 뚫어서 만든 터널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장관이다.

알프스 열차 내에는 한국어 안내 방송도 나온다. 볼거리가 많다. 곳곳에 웅장한 빙하 폭포가 눈길을 끌며 시원하다. 봉우리 정상에 있는 곤돌라도 있어 20분 정도면 해발 2,000m의 피르스트까지 간다. 이런 높은곳에 하이킹 족도 많이 눈에 띈다. 계곡마다 아름다운 호수가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치를 감상케 한다.

알프스로 가는 길가엔 여행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호텔과 노천 카페가 있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넓은 목초밭이 한눈에 들어와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경치가 극치이다. 아름다운 풍경 감상하기에 더 없이 좋은 알



七旬을 맞아
‘느림의 美學’ 새기며
알프스 정상에 오르니
‘컵라면’이 우리를 반겨
國威를 실감한 그 맛이...

· 알프스 산기슭에서 김종현(왼쪽) · 임현태 회우가 정상을 바라보고 있다.

면 일이 생기고 일을 살피면 일을 더는 것이니, 일을 자꾸 만들어서 바쁘게 살지 말고 일을 살피서 일을 끌라가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시대의 불행은 삶 속에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독서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는 여유로움 말이다. 여행은 보약이다. 나는 알프스 산 정상을 오르며 자연의 여유를 마음껏 누렸다. 여유와 자유로움이 있는 「느림」의 미학이 있는 세상, 그런 알프스 만년설 봉에서 그런 세상을 꿈꾸며 큰 숨을 내쉬었다.

“유럽을 즐기자!...” 기차를 타고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제네바의 흥내음을 마음껏 마시면서 만년설로 덮여 있는 「유럽의 지붕」융프라우요흐(Jungfrau)에 올랐다.

알프스의 봉우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융프라우요흐로 올라가는 길은 너무 아름답다.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초원에 끝없이 피어 있는 들꽃, 그 사이로 달리는 등산열차는 하나의 작품이다. 장엄한 알프스를 덮고 있는 만년설은 마냥 눈 부시고 100여개가 넘는 봉우리는 「눈의 병풍」으로 예찬을 숨길 수 없다.

알프스에는 또 많은 전망대들이 있고 전망

프스 길이다.

융프라우요흐의 자연을 “젊은 처녀의 어깨”라 별칭하기도 한다. 융프라우요흐로 가는 열차길은 바위산을 뚫고 가는 철로로 1896년부터 16년이란 오랜 세월과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여기서 스위스 사람들의 융프라우요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고 들판의 나무가 무성한 초원 역시 그렇다. 빙하를 뚫어 만든 4층의 열음굴전 등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다.

정상 전망대 휴게소 매점에 한국산 컵라면이 보여 너무나 반가워 얼른 사 먹기도 했다. 이곳 정상에는 우체국이 있어 기념엽서를 써 보내는 관광객이 많았다.

어디가나 한국사람이 많다. 한국 사람들의 유럽여행 인파에 놀랐다. 알프스에서 만난 한국인도 수십명이나 되었다. “경제가 어렵다”는 국내 분위기와는 상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무척 반가웠다. 우리의 국위가 이만큼 크다는 자부심과 자신감도 나의 마음속 깊이 새로 심었다.

빨리빨리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삶이 아니다. 인생 7순맛이 알프스 등정이었지만 이제 다시 더 큰 귀와 눈을 갖고자 인생 8순을 향해 새롭게 숨을 쉰다.



김승웅의

클래식 영화 탐험



· 필자 : 본회 회우 · 빅뉴스포럼 대표 · 전 한국일보 프랑스특파원

로마에서 세편의 영화 〈자전거 도둑〉과 〈길〉 〈로마의 휴일〉 탐험을 마친후 임지인 파리를 향해 떠난 것이다. 파리까지는 18시간을 달려야 한다.

한 밤중 파리에 도착, 큰 짐을 제 친구 집에 떨어뜨리고 내가 사는 라 데팡스 아파트에 닿은 즉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지라 할 수 없이 나의 거처인 18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18시간을 잠 한잠 안자고 달려온지라 한 발짝 떼놓기도 어려울 만큼 지쳐있었다.

거기에 여행용 가방까지 들쳐메고 끄끖대며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전장, 누구 한 사람이 뒤따라 불까지 한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려니... 허나 어쩐지 기분이 언짢다. 칠흙처럼 캄캄한 비상구 안에서 생면부지의 사람과 열 여덟층을 같이 걸어올라가야 할 판이다.

더 기분 나쁜 건, 숨이 차 비상 계단에 걸터앉아 숨을 돌렸더니 그 자도 함께 쉬는 게 아닌가. 가까스로 18층 비상구를 빠져 나온 즉 그 사나기도 뒤따라 함께 나온다. 라이터를 꺼내더니 제 얼굴을 비춰준다. 전혀 못본 얼굴이다. 사내는 싱긋 웃더니 그 제서야 자기 신분을 밝힌다. 경찰이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혹시라도 무슨일이 생길까 싶어 아파트 입구에서 대기하다 나와 동행한 것이다. 정전이 된 후, 이번이 열 한번 째 동행이라고 설명한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 경찰이 바로 이런 거구나!

원산지 파리에서 만나 본 경찰의진 모습이다. 폴리스(police)는 나폴레옹이 세계 최초로 만든 행정제도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가 경찰제도의 원조 국가다. 나폴레옹이라는 한 천재가 마련해 준 혜택을 지금 전 세계가 이용료 한푼 안물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어디 제대로 활용이나 했던가? 사람 데려다 때리고 수탈하고 토색질하고 죽이고... 심지어는 톡!했더니 억!했다는 헛 소리나 해대고... 아무튼 프랑스는 그 경찰 원조 국가 노릇을 2백년이 지난 지금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휴를 남짓 비워두었지만 파리엔 아무 일 없었다. 서울 본사에서 전화 한번 없었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허탈했다. 세상만사가 내 통제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묘한 소외감이 든 것이다. 허나 기분은 좋았다. 이왕 내친김에 내일 또 영화탐험에 오르기로 결심했다. 행선지는 지중해 건너 모로코! 차를 가지고 갈 수는 없다.

기창(機窓)아래는 지브롤터 해협이다.

지상 1만m 상공, 카사블랑카행(行) 상공에서 내려다 보는 대륙의 해협은 한가닥 강 줄기에 불과하다. 전란을 피해 유럽을 탈출하던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역들처럼 갑자기 신천지예의 꿈이 부른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어차피 한편의 영화가 아닐까. 상영시간이 60~70년 정도 걸린다는 것, 또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다를 뿐, 인생만사는 구질구질한 한편의 영화 스토리에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카사블랑카에 닿는다.

영화에서 보던 장면 장면은 이 북(北) 아프리카의 도시에 결코 실재하지 않는다.



· 출중한 연기로 팬들을 사로잡고, 킥점으로 세계적 명성을

“A

사우디

수십번씩

쌀에 견

켜 호텔

처음 상

과시한다

철이

대리고,

라서 소

게 그려

영화

모

집결지

남미 등

영화의

comes to

탈출한

행 비자

면 일단

• 마이클 커티즈의

⑤

카사블랑카

분짜리 영화 전편은 모두 미 할리우드의 워너 브러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이다.

과 그렇다고해서 어떻게 말인가.

인생도 허망한 가공(架空)이 아니던가. 파스칼이 말했듯 “둥근 달을 감성적이 아닌, 기하학적 시 보는 자는 바보”일 뿐이다.

공 리크가 경영하던 카페 아메리칸은 카사블랑카 시판에 가공(架空)아닌 정말로 있다. 모하메드 5세 광물 하이아트의 옥내(屋內) 바(Bar)로 바뀌어, 이 영화하는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플래시 세례를 받고있다. 이 경영해 온 호텔 카사블랑카를 (당시로)4년 전



· 사랑과 우정 그리고 조국을 생각하게 하는 '카사블랑카' 포스터.

났다.

영화 <카사블랑카>가 히트한 가장 큰 요소는 전란에 휘말린 극중 배경과 당시 이 도시가 처해 있던 시대적 배경이 일치한다는 리얼리티 때문이다. 감독 마이클 커티즈는 이갈

A kiss is still a kiss...

再生된 영화속 카페서 '세월이 흐르면' 주제 노래가...



로잡은 험프리 보카트와 이 영화를 얻은 잉그리드 버그먼.

As time goes by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A sigh is still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As time goes by

Moonlight and love songs
Never out of date
Hearts full of passion
Jealousy and hate
Woman needs man
And man must have his mate
That no one can deny

It's still the same old story
A fight for love and glory
A case of do or die
The world will always welcome lovers
As time goes by

세월이 흐르면

※ 영화속 노래

이것은 기억해야해요
키스는 단지 키스일 뿐이고
후회는 그저 후회일 뿐이라는걸요
근본적인 마음은 그대로죠.
세월이 흘러도...

두 연인이 아직도
사랑한다며 속삭이네
미련은 남아 여전히 사랑고백을 하네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도...

달빛과 사랑의 노래는
절대 시들지 않아요
가슴 가득한 열정
부러움과 시기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남자는 자신의 짝을 가져야 한다는건
아무도 부인할수 없죠.

여전히 똑같은 해묵은 이야기죠.
영광스런 사랑을 얻으려는 싸움은
승리 아니면 죽음이에요
세상은 언제나 연인들 편이죠
세월이 흘러도...

전 이후 독일로, 그후 다시 오스트리아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가 막판에 할리우드를 찾아와 1백여편의 영화를 양산한 명감독이다.

세트 촬영이 특기인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따낸다.

영화의 첫 시사회는 43년 1월 뉴욕에서 열렸다. 미군을 주축으로한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진주가 시작되고나서 18일이 지난 싯점이었다. 오랑으로, 알지예로, 카사블랑카로 속속 진주하는 연합군의 사기와 이를 지켜보는 전 세계의 관심속에 <카사블랑카>는 영화 흥행사상 전무후무의 대목을 만난다.

미 전역에서의 개봉은 그해 1월 23일. 또 한차례의 블랙 잭이 터진다. 루스벨트 미 대통령과 처칠 영국 수상간의 '카사블랑카 비밀회담'이 바로 그때 이뤄진 것이다. 양 거두가 회동한 안파(Anfa)호텔은 본래 카사블랑카 시 남쪽 별장지대에 있었으나 호텔은 이미 헐린지 오래이고 야자수와 열대 수목들이 즐비한 공터로 남아 꼬마들의 동네 축구장으로 바뀌어 있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회담을 끝낸 후 미 본토에서 공수해 온 이 영화를 숙소에서 함께 관람했다는 소문(?)이 있으나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다. 그러나 타이밍에서 거둔 일련의 명성이 영화 자체의 값어치를 앞지른 것은 아니다.

특히 험프리 보카트의 출중한 연기는 그때까지 만들어진 그 어떤 영화로도 필적할 만한 연기를 찾기 힘들 정도다. 영화 <카사블랑카>는 그의 나이 43세 되던 해, 그의 전성시대가 극점을 이루던 시절의 작품이다.

이 영화 이전까지 그에게 맡겨져온 배역은 갱이나 악역이 주종을 이뤘다. 길다란 인중(人中)과 잘 발달된 하관, 싸늘한 눈매와 거친 어조는 악역에 관한한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천부적인 마스크로 인정받았다.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그의 짧고 투박한 어투가 관객들, 특히 여성관객들을 사로잡았는데, 이는 감독이 시켜서가 아니라 보카트 자신의 과거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에 입대한 그는 배속된 레바이아탄 호(號)가 독일 공군기의 기습공격을 받아 이때 윗 입술에 파편 조각이 박힌다. 파편은 수술로 제거됐으나 이로 말미암아 한때 윗 입술이 마비된 적이 있고 그때부터 투박하고 혀짧은 발음으로 바뀐 것이다.

함께 공연한 잉그리드 버그먼은 당시 29세로, 그녀 역시 이 영화를 기점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었으나 연기면에서는 보카트를 따라잡지 못했다. 이 영화 다음해 만들어진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와 그 이듬해의 <가스등(燈)>(아카데미 주연 여우상 수상)에 와서야 진가를 발휘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미제(美製) 영화라면 비평의 대상에도 넣지 않아 온 프랑스 영화 비평가들도 이 영화 <카사블랑카>에 대해

서만은 그런대로 관대한 평가를 내린다는 점이다. 관대해봤자 '저질 영화 가운데 수작(秀作)급 (음서바퇴르 지/87년 9월)'이 고작이었지만 "이 영화에서 울려 퍼지는 <라 마르세예즈(프랑스 국가)>를 듣고 또 한차례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는 영화"라고 그 감명을 실토하고 있다.

밤이 깊어 다시 호텔의 카페 아메리칸에 들러본다. 영화에서 흑인 가수 둘리 윌슨이 앉아있던 검은 피아노 앞엔 스페인 출신의 한 무명가수가 앉아있다. 영화에서 들던 노래 <세월이 흐르면(As time goes by)>을 부탁하자 기다렸다는듯 건반을 두드리며 노래한다. "You must remember this. A kiss is still a kiss..."

빠뜨릴 뻔한 가십이 있다.

이 영화의 기획단계에서 최초로 결정됐던 배역은 리크 역이 로널드 레이건, 일자 역이 앤 셰리던, 라슬로 역이 데니스 모건이었다는 사실이다. 다른 배우는 몰라도 로널드 레이건이 만약 리크 역을 맡았던들, 영화 <카사블랑카>가 과연 나에게 영화 탐험 대상이 되었을지, 또 레이건이 당시의 미국 대통령의 이미지로 남았을지... 갑자기 웃음이 나온다.

은 타이밍을 극중 배역이나 드라마 전개에도 그대로 원용한다.

출연진 가운데 미국인으로는 주인공 리크(험프리 보카트)와 피아노 영탄 가수인 흑인 샘(둘리 윌슨)뿐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유럽계 다국적이다. 주연 여우 잉그리드 버그먼은 스웨덴 출신으로, 할리우드에 발을 붙인지 3년이 채 못되던 무렵이다.

레지스탕스 총책 역의 폴 헨라이트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배우 겸 감독. 나치 소령역의 바이트는 베를린 근교 포츠담을 고향으로 둔 독일 산(産).

주인공 리크를 짝사랑하는 이본느(마들렌느 노브)나 리크 덕분에 노름판 돈으로 미국행 노자를 마련하는 마르셀 달리오의 프랑스 배우다. 이 영화의 출연진 거개가 우리 표 현대라면 '한(恨)을 지고 살던' 유럽 유랑민들이어서, 영화 <카사블랑카>는 따지고 보면 이들이 작심하고 한판 벌인 마당굿이었다.

무엇보다도 감독 커티즈 자신이 헝가리 출신의 자유 투사라는 점을 지나칠 수 없다. 본명이 미하리 케르테즈인 그는 1906년 부다페스트에서 연극배우로 이름을 날리다 1차대

거부가 인수, 이름을 하이아트로 바꾸고, 하루에도 카페 아메리칸의 위치를 물어오는 관광객들의 등디다못해 영화속의 카페와 똑같은 모양으로 재생시간에 묶여 둔 것이라고 한다. 카페 입구에는 영화가 영됐던 1943년의 포스터 두 장이 붙어 '정통성'을

지난 카페는 한산하다. 영화 속의 검은 피아노도 그 피아노 뒷벽에는 리크가 공항에서 나치 장교 슈트령을 향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던 장면이 커다랗

가 만들어지던 당시(1942년) 프랑스 영(領)이었던 로코는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대원들의 해외

다. 또 나치에 쫓기는 유럽계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신천지로 도망치던 중간 거점이기도 했다.의 원저 <누구나 리크네 집에 모이네(Everybody's Rick's)>의 제목 그대로 당시 프랑스 등 유럽을 부자나 지식층들은 이곳 카사블랑카에 모여 미국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버즈 두바이를 가다 - 사진작가 김중만 편

이상이었습니

그냥 끝없이 높은 빌딩인데, 아직 다 완성도 되지 않은 시멘트와 철조 구조물일뿐인데, 제 가슴이 울렁거리고 뿌듯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세상입니다.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세계에서 최고가 된다는 경이로움이라고 할까요, 이곳에 깃든 힘과 도전정신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 버즈 두바이. 세계 건축사의 새로운 역사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펼쳐집니다.

2007. 6 김중만



2009년 완공되면 160층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될 버즈 두바이, 700m가 넘는 이 꿈의 거탑을 삼성건설이 짓고 있습니다.

기술의 높이가 다릅니다

SAMSUNG

삼성물산 건설부문

그 ‘남산’의回憶

(上)

‘韓勝憲 변호사 수필’이 문제되어

1975년 6월 19일, 그날은 목요일이었나? 목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간에 그 무렵 나는 매일 일요일이었다. 동아일보사에서 기자들의 농성투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목이 잘린지 서너달 됐을 것이다.

강남의 반포동 셋집에서 살 때였다. 아침 6시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군가? 잠옷 바람으로 나가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뭐요?”

“이집 팔 집입니까?”

“거 왜 물어요?”

“살려고 그러니까?”

“누가 판답니까?”

“근처 복덕방에서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यो. 집 주인이 팔려면 나에게 먼저 알렸을텐데?”

“거 이상하다. 다시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뭔가? 싶었지만 별 생각없이 아침 먹고 사내 아이를 큰 길 건너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집사람이 순경 한 사람과 함께 급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나를 불렀다.

“뭐요!”

순경이 하는 말이 급한 신원조회 지시가 왔으니 파출소로 가잔다.

“급한 신원조회가 뭐요? 뭇 때문에 그래요?”

“미안합니다. 잠깐 들려주시면 됩니다.”

파출소에 들어서자 아침에 왔던 그 청년이 서 있었다.

“우리 사장이 그 집을 꼭 살려고 합니다. 저기 차에 앉아 계시니 안팔면 안판다고 해 주세요.”

“이봐요, 그 집은 내 집이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소?”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 주세요.”하며 나를 차쪽으로 이끌고 가더니 검은 세단의 뒷쪽 문을 열었다. 체격이 듬실한 중년이 칼 같은 시선을 이쪽으로 보내는데 뒤쪽에 서 있던 청년이 나를 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청년이 나를 가운데 두고 앉으며 차문을 닫자 세단은 큰길로 유턴해서 다리를 건너 남산쪽으로 쏜 살같이 내달았다.

“이게 무슨 짓이요. 당신들 뭐요. 왜 이래요.”

“가 보면 알아요. 금세 끝날 일인데…”

검은 차는 순식간에 남산의 중앙정보부 청사안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내달았다.

건물 3층이던가? 나를 데리고 올라간 그들은 어느 방으로 이끌었다.

수사관인듯한 중년의 서너 사람이 나를 에워쌌다. 대뜸 “증인 서지 말라”고 했다. 그때서야 나는 나를 납치해온 이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하루전 한승헌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며칠뒤에 있을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부탁이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러마’고 했다. 중앙정보부가 수사관을 시켜 나를 납치하기로 한 것은 증인 부탁의 전 화통화가 도청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즈음 한승헌 변호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계류중이었다. 내가 동아일보사에서 해직되기 얼마전, 여성동아 부장으로 있을 때 한 변호사가 여성동아 수필란에 기고한 ‘어느 사형수의 죽음’이라는 수필이 반공법에 걸려 한 변호사는 구속상태였다.

저희들 표현대로라면 한 변호사가 박정희와 유신정



권을 걸어 “계속 간죽거리니까” “뜨거운 맛”을 보이려고 작정하고 펼친 일종의 소탕작전이다. 상황이 살벌하게 벌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편집책임자로 있던 여성동아의 수필이 문제되어 일어난 사건인데 피고측의 증인 요청에 내가 나몰라라 할 수 있겠나 싶었다.

그런데 그 수필이 어떻게 해서 반공법에 걸리나? 나는 증인을 설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하니까 그들 중의 장(長)인 듯한 사람이 “왜 그 수필이 반공법에 걸리는지 보여줄테니까 증인은 안 서는게 좋을거라”고 했다.

수필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아주 간추리면 이렇다.

“오늘 당신의 죽음을 신문 보도로 알았소. 같은 지면에 XX기사는 2단ियो, 여면도사들이 데모를 했다는 기사는 3단인데 당신의 죽음을 알리는 기사는 1단이



· 유신시절 이른바 ‘남산’ (중앙정보부 지부)에서 반공 언론인들이 곤욕을 치렀다.

“증인 서지 말라” 사흘낮밤 억박질러 ‘고문기술자’가 “이 방에서 김지하도 불고 나갔지…”

요. 죽는 마당에 2단이면 어떻게 3단이면 어떻게소마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이의 죽음을 들어 사형 폐지를 주장한 수필이 왜 반공법에 걸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그들 중의 장인 듯한 사람이 내 앞에 복사한 몇월 며칠자 한국일보 사회면을 펼쳐들더니 “자 보시오. 여기 XX기사는 2단으로 나와 있고, 여면도사들의 데모 기사는 3단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 지면에서 죽음을 알리는 1단 짜리 기사는 여기 한 건 있지요. 간첩 김규남의 사형집행 기사 밖에 죽음을 알리는 다른 기사는 없지 않소. 그러므로 간첩 김규남의 죽음을 애도한 이 기사는 반공법 위반이란 말ियो, 고무 찬양에 해당하거든…”

“아니지요. 그 수필은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기 위해 쓴거지요. 사형집행 기사를 들어 사형폐지 주장의 수필을 썼을 뿐이지 김규남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하듯이 귀신처럼 한국일보 사회면을 찾아내어 그 ‘당신’이 간첩 김규남인지 누가 알겠소?”

“이거 순 어거진데” “안되겠구만…”

증인만 서지 않겠다면 곧장 돌려보내겠다던 그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서 눈에 흰자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나는 증인을 설 수밖에 없다고 버티자 그들은 억박질렀다가 달랬다가 한다. 요컨대 내가 증인으로 나서면 공소유지에 지장 있다는 판단인 것 같았다. 실제 그 중의 한 사람이 “공소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번 작정한 일을 세(勢) 불리해도 바꾸지 않는 것은 기분때문이 아니라 내림의 업(業)이라면 업

이다.

나를 납치해온 그 수사관이 나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이 방에서 김지하도 불고 나갔지!”한다.

속으로 웃었다. 김지하가 불고 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불 일이 뭐 있나?

목침대 막대기를 뽑아 나를…

그로부터 사흘 낮밤의 승강이가 시작됐다.

잠을 재우기는 하되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무엇이 그렇게도 물을 것이 많은지 별의 별걸 다 물었다. 심지어 사형폐지 주장의 논거를 대라며 종이와 볼펜을 내밀기도 했다.

나는 소동파의 말대로 독서만권부독률(讀書萬卷不讀律), 책을 만권을 읽어도 법률 책은 읽지 않는 사람이 되 그거야 한승헌 변호사의 수필 속에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겠나.

1. 인권천부설… 하늘이 준 사람 목숨, 사람이 함부로 못 뺏는다.

1. 오관일 경우 집행한 사형을 되돌릴 수 없다.

1. 형벌의 효과가 그다지 없다. 사형제도가 수천년이 돼도 범죄가 없어졌나?

“허어! 증인 서기 위해 공부 꽤나 했구먼”

조금 있자 얼굴이 새카맣고 강마른 중늙은이가 들어오더니 벼락같이

“뭐 이래”한다. 나로서 보면 너희들의 자문자답이겠지. 나보고 할 소리는 아닌데… 싶었다.

또 조금 있다가 좀 부드럽게 생긴 사내가 들어오더니 살살 달랜다. “공소유지에 지장있으니 증인 서지 마세요”라고 했으나 거칠고

부드럽고 간에 내가 너희들 장단에 춤을 추랴.

사흘째, 나를 납치해 오고 사흘 낮밤을 지지고 볶은 그 전담 수사관의 구레나룻이 푸릇푸릇 짙어지더니 “간첩이라 하더라도 자연인으로 잘 알던 사람이면 죽음을 애도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나의 말에 “뉘라! 이거 빨갱이군”하더니 목침대에서 막대기를 뽑아 들었다. 그는 기술자였다. 빠는 때리지 않고, 엉덩이에서 장판까지 살 깊은 쪽만 골라서 일급 고수처럼 이리치고 저리쳤다. 견디지 못해 주저앉자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하게 하고는 차에 실어다가 우리집 근처에 내려놓고 사라졌다.

집에 기어들어간 뒤 나는 두 발을 펴고 오무릴 수 없게 되었다. 엉덩이부터 장판까지 옷칠한 것처럼 새카맣게 변했다. 권력은 원초적인 형태가 폭력인가. 저희들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제압하거나 제거하려는게 그들의 속셈 아닌가.

신문사에서 해직된 사람이 중앙정보부가 못하게 하는 증인을 고집하니 물리적으로 못 서게 하는게 수순일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나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고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인가? 기연(奇緣)이라면 기연이다. 당시 한양대학교 교수였고 침술병원을 차리고 있던 권도원 박사가 근 열흘만에 병신될줄 알았던 권도홍의 발을 말짱하게 고쳐 놓았으니 말이다. 그는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발전시켜 팔상(八象)의학을 창시한 대단한 한의사이자 침술의 대가다. 지금도 신당동에 병원을 차리고 있으나 암환자 외에 보지 않는다고 한다.

칠십 중반을 넘어선 내 발은 다행히 건각(健脚)이라 할 만하다. 그 때 내 또래 나이로 보였던 그 수사관은 발이 아프지 않은지 모르겠다. ☞



권도홍

- 본회 회우
- 전 동아일보 편집부장
- 전 주부생활 부사장

Drive your way

대신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감동은 아무나 줄 수 없다

명차의 감동 —————
SONATA



쏘나타 저속충돌 범퍼테스트(정후방) 1위

美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 (IIHS) 주관 테스트
(세계 유수 중형차 17대 중 가장 저렴한 수리비)

국내 타 중형차 대비 보험료 최저

보험개발원 주관, 국내 4사 중형승용차 충돌시험결과 쏘나타 1등급

세계적인 특허기술 AGCS (주행안정성 제어 시스템)

쏘나타는 현대자동차의 세계적 특허기술인 AGCS를 장착함으로써 주행상황에 따라 스스로 위험을 감지, 판단하고 차체를 제어하여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쏘나타진실** 을 쳐보세요



www.hyundai-motor.com

■ 구입 문의전화 1588-0550 전국 어디든 가장 가까운 지점 및 대리점으로 연결되어 구매에 관련된 상담을 헤드라인(후대문)으로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원콜서비스 080-600-6000 자동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수신자부담) ■ 사이버 감사실 (윤리경영 신고센터) 02-3464-3500 부당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관행을 접수 받습니다(부조리 및 비리)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2.0 VVT/배기량1998cc/수동5단/공차중량1460kg, 12.3km/ℓ, 3등급/자동4단/공차중량1465kg, 10.8km/ℓ, 3등급/5단1701~2000cc *2.0 VGT/배기량1991cc/수동5단/공차중량1581kg, 17.1km/ℓ, 1등급/자동4단/공차중량1601kg, 13.4km/ℓ, 2등급/5단1701~2000cc *2.4 VVT/배기량2358cc/자동5단/공차중량1515kg, 11.1km/ℓ, 2등급/6단2001~2500cc *3.3 VVT/배기량3342cc/자동5단/공차중량1612kg, 9.2km/ℓ, 1등급/6단3001cc~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 정속주행을 합니다. ■ 현대자동차는 고객보호를 위하여 당사 지점, 대리점의 직원을 통해서만 차량을 판매 합니다(최근 당사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통한 구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니 당사 직원을 통해서만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仁村賞 수상’ 南時旭 회우 (세종대 석좌교수)

“취재접근 막는 걸 기자들은 막아내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인촌상(仁村賞)을 받게 돼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른 훌륭한 선배들께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제21회 인촌상 언론 출판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세종대 석좌교수 남시욱(南時旭) 회우는 언론계와 대학 강단에서 거둔 많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에 비해 상복이 많은 듯하다”며 겸손해 했다.

(인촌상 시상식은 10월 11일(목) 17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강당.)

동아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발을 내디딘 남 회우는 40여년 언론계 생활 중에 “1987년 동아일보 편집국장 재직 당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보도하면서 정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뽕뽕 뭉쳐 연속 특종 기사를 썼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당시 동아일보 보도가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남 회우는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브리핑 룸 통·폐합과 취재통제 조치에 대한 언론계의 대응은 미지근하다”며 “이른바 정부의 ‘취재 선진화 방안’은

취재 봉쇄를 통한 언론자유 침해만큼 언론인들은 투쟁해서 꼭 막아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공무원들과의 접촉을 막는 일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로서 “이번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 속에 큰 죄를 짓게 된다”고 강조했다. 남 회우는 또 “기자 실이란 언론인들에게 ‘전방초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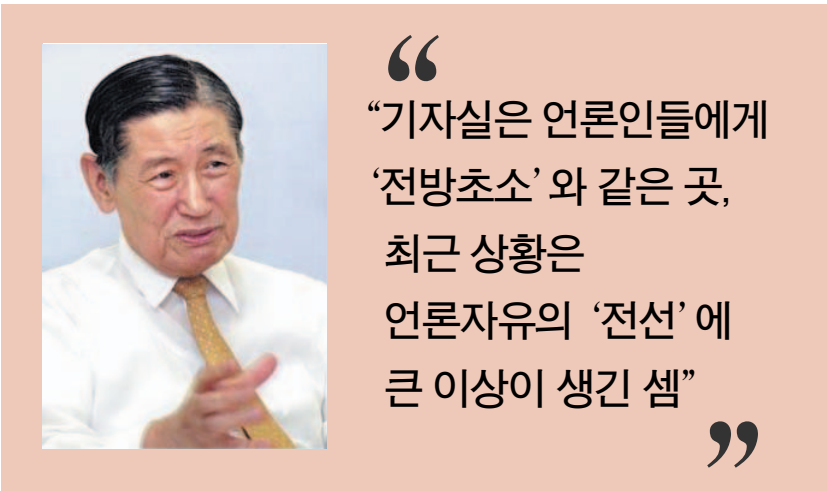
대 말부터 기자로서 정치 사회 현장을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보수세력의 공과를 균형있게 다뤘다는 평을 들었다. 또 한국 최초로 ‘인터넷 시대의 취재와 보도’라는 언론학 전문서적을 출간, 21세기 새로운 언론환경에서 신문·방송이 나아갈 길을 예언자처럼 제시하기도 했다. 이 취재보도론은 남 회우가 신문사 생활에서 얻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학술적 이론을 환상적으로 결합시킨 역저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전국 언론학 교수들이 주요강의 참고서로 채택하고 있을 만큼 주목받는 언론학 저서로 알려졌다.

남시욱 회우는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나와 1959년 동아일보

수습 1기로 기자생활을 시작해 정치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 상무이사를 거쳐 문화일보 사장을 지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과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이사장도 역임했다. 언론인으로서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붉은 카펫만을 밟아온 특급 언론인으로 꼽힌다.

이는 일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끈기와 겸허한 자세가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다. (筆田)



“기자실은 언론인들에게 ‘전방초소’와 같은 곳, 최근 상황은 언론자유의 ‘전선’에 큰 이상이 생긴 셈”

같은 곳인데, 최근 상황은 언론자유의 ‘전선’에 큰 이상이 생긴 셈”이라며 “최근 정부가 내놓는 방안들은 과거 독재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많으며, 전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 회우는 항상 책가방을 들고 다니며 집필과 연구생활에 몰두하고 있다. 언론사 퇴직 후 2005년 말 출간한 ‘한국보수세력 연구’는 1950년

言論街



1일부터 통합브리핑 실시

정부가 10월 1일부터 청사 별관에 마련된 통합 브리핑 룸에서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를 비롯, 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국세청 등 독립청사 브리핑 룸을 폐쇄하고 추석연휴가 끝나는 10월 1일부터 통합 브리핑 룸에서 모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 청사 브리핑 룸의 의자와 책상, 에어컨 등 집기들을 청사 별관인 외교부 건물에 새로 마련된 통합 브리핑룸으로 옮기고 있으며 기자단에게 브리핑 룸 집기 이전과는 별도로 기사 송고실을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27~28일께 청사 별관의 새로운 송고실로 옮겨줄 것을 통보했다.

다만 이달 2~4일이 남북정상 회담인 관계로 통일부 등 관련부처 기자단이 송고실 이전을 회담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골프사업가 정홍희씨 ‘스포츠서울’ 인수

충북지역 중견 기업인인 (주)덕일 정홍희(52) 회장이 (주)스포츠서울21의 지분을 매입해 사업영역을 언론분야로 확장했다. 정 회장은 9월 19일 스포츠서울21의 모기업인 서울신문측과 100억원대에 달하는 최대 지분 주식 매입에 합의했다.

정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로드랜드를 (주)스포츠서울에 흡수합병시키는 형식으로 29%의 지분을 가진 새로운 대주주가 됐다. 증권거래소는 9월 21일 이같은 양사의 합병사실을 공시했다. 합병을 통해 (주)로드랜드는 스포츠서울21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하게 됐다.



재미마당

바조 세수기!

는 거냐?

며느리 : 예~ 역사 바로 세우길 한답니다.

(귀가 먹은 할머니: 역사를 여자로 잘 못 알아듣고 서는.)

할머니 : 뭐-, 여자가 바로 세우기 한다고,

응! 뭐니 뭐니 해도 여자가 세우기는 잘하지.

암 잘하고 말고!!

一笑一少

一怒一老

요즘 고구려 문제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한창 이슈로 떠올랐다. TV에서 열띤 토론을 지켜보던 할머니.

할머니 : 아가 아가, 도대체 뭘 바로 세운다

KB

이승엽의 스윙보다 더 자랑스러운 스윙이 또 있을까요?



김연아의 스케이트 날보다 더 눈부신 칼날이 또 있을까요?



비보이의 몸짓보다 모두를 감동시킨 몸짓이 또 있을까요?

5000만명이 함께하는 새로운 1등들의 이야기

국민의 만능입니다

미래를 여는 지혜 — KB 국민은행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창립 30주년 기념식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은 지난 9월 14일 관훈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신영기금회관 재개관 및 정주영, 정신영 형제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사진)

신영기금회관의 1층은 관훈클럽과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기념관, 2층은 북카페, 3층은 집필실로 꾸며졌다.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요즘...



회우 동정

· 남시욱(南時旭)회우(광화문문화포럼 회장)= 9월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74회 아침공론시간을 갖고 지식산업사 김경희 사장의 강연을 들었다. 김 사장은 이날 '한국 근현대 지식인사회 되돌아보기-그 역사와 구조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최근의 가짜 학위사건에서 드러난 지식인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 여영무(呂永茂)회우(남북전략연구소장)= 9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회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예비역대령연합회 군사연구위원회 초청으로 '아프간 인질테러와 국제테러리즘'

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 이경남(李敬南)회우(한국발전연구원 원장)= 9월 2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박세일(朴世逸) 서울대 교수를 연사로 초청, '대한민국의 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 김귀제(金貴濟)회우(전 일본 동화신문 편집국장)= 일본에서 32년동안 언론 활동을 해온 김 회우(80)가 올 추석을 맞아 영구 귀국했다. 연락처: 010-2047-6197

· 이배영(李培寧)회우= 지난 여름 양 무릎을 수술하고 8월 초 한 달 만에 퇴



산악회 사패산 등반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9월 15일 경기도 사패산 9월 산행을 했다. (사진) 이날 산행에는 조창화 회장을 비롯해 지용우 고문 등 회원 15명이 참석, 비온뒤 맑은 가을을 만끽했다. 산행 뒤 회원 단합을 위한 생맥주 파티로 즐거

운 한때를 보냈다.

♡ 자녀 결혼 축하합니다

· 박종서(朴鍾瑞)회우 장남 진호군= 10월 6일(토) 오후 2시 종로국립관 드림팰리스 종로웨딩의 전당 8층 그랜드홀. ☎ 016-622-8575

원했다. 수술결과는 매우 좋은 편으로 최근엔 외출도 하고 있다.

· 안중우(安鍾禹)회우 (본회 사이버위원)= 10월 10일부터 중국 황산, 항주 등지를 4박 5일 예정으로 역사 탐방.

· 최귀조(崔貴照)회우 (본회 자격심사위원장)= 일본 벳푸 스기노이 호텔에서 10월 1일부터 3박 4일 예정으로 열리는 평화대사 회장단 워크숍에 참석.



회우가 펴낸 책

〈사진이야기 - 사진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 전민조 엮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직장에서 물러난 뒤 카메라를 친구 삼는 사람들이 많다. 딱히 자기가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누구나 사진에 대한 관심과 사연을 갖고 있다.

중견 사진작가 전민조(田敏照) 회우가 이같은 사진을 주제로 쓴 글들을 모아 〈사진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엮어냈다. 제1부 사진 에세이, 제2부 사진기자 이야기, 제3부 사진 집에 부쳐로 구성돼 있는 이 책에는 사진에 얹힌 경험과 감동, 실수, 취미, 추억, 교유 등을 밝힌 글들이 실려 있으며 사진의 사회적 의미를 다룬 몇 편의 글들도 곁들여 있다.

글쓴이들은 사진기자에서부터 사진가, 시인, 소설가, 언론인, 교수, 비평가 등 실로 다양하다. 그만큼



사진에 대한 에피소드와 느낌도 다양하다.

어느 누군가가 사진을 찍는 것은 세상을 나누어 보는 일이라고 했다. 이 〈사진이야기〉는 우리에게 사진과 삶이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가졌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진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수필집처럼 부담없이 읽힌다.

한국기자협회 자료회원으로 모십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주간 '기자협회보'와 월간 '기자통신'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협회보는 64년 11월 10일 창간돼 유신헌정으로 강제 폐간당했고 80년 언론 대탄압 당시에도 폐간되는 아픔을 겪었던 기자협회의 기관지입니다. 또 기자통신은 언론계 전반에 대한 최신 언론이론 및 취재실무, 언론계 시사성 등을 게재한 정통 언론정보지입니다.

자료회원 가입으로 언론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접해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자협회 사무처(전화 734-93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회비 : 7만원

■ 온라인계좌번호 : 농협 056-01-002738

■ 예금주 : 한국기자협회

데일리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종합일간신문입니다.

‘데일리노컷뉴스’는 다른 무료지와는 달리 정치, 경제 등 시사뉴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력이 높은 30-40대 직장인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주 독자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데일리노컷뉴스’는 매일 아침 32-48면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노컷뉴스’ 광고는 주목율이 높아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데일리노컷뉴스’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알곡으로 온 동네는 행복한 웃음이 채워집니다!

조용했던 탄자니아 만야라 마을, 오늘은 낫선 땅에서 온 뿔튀기기계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릇 가득 옥수수를 가져온 아이도, 한 줌도 못 가져온 아이도 설레기는 마찬가지,
평 소리가 나고 알곡을 못 가져온 아이의 빈 그릇에도 옥수수가 가득 담겨집니다.
온 동네 아이들의 그릇에 하얀 행복이 골고루 나눠 담겨진 이 순간, 모두의 얼굴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미소가 담겨집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